

○● 특 집 민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와 도서관, 그리고 민관협력

- 충청북도 옥천군의 사례

: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서 만든 작은 도서관, 희망의 씨앗 뿌렸다.

Special Issue



황민호

옥천신문사 취재기자
minho@okinews.com

1. 들어가며

충북 옥천군, 인구 5만 명이 조금 넘는 대한민국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시골 농촌이다.

그냥 땅을 갈아엎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은 농사거리를 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오갈 데조차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농촌의 일상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다. 길들여진 몸뚱이 하나야 시골에 묻혀 그런대로 지낼 수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시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들이 도무지 갈 곳이 없다. 옛날보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학원조차 하나 없는 시골 바닥에서 일찍 학교를 파하고 돌아온 아이들은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둘러싸여 혼자 방치되기 일쑤다. 창밖의 자연은 그냥 자연에 불과할 뿐이고, 아이들 맘속까지 깊이 스며들지 못했다.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눈발에 나가 일

하기 바쁘고, 혼자 남겨진 방은 마치 빈 상자 같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간다.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공동체의 고리도 그렇게 끊어진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농촌자치단체에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기란 정말 어렵다. 면 지역에는 어린이집 하나 없고, 학교가 파하고 일과가 끝나면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버린다.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딛고 있는 땅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가는 인연도 각별히 생각하는 안남면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서 풀어볼까 한다. 주제가 '주민자치', '도서관', 그리고 '민관협력' 이니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2. 언론, 민관협력(거버넌스)을 이끌었다

주민들의 꾸준한 의지와 주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아준 국립중앙도서관,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의 힘으로 도서관은 만들어졌지만,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유지할 재원이 큰 고민이었다. 도서관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군에 찾아갔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도서관이 없는 다른 면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고수했다. 주민들의 걱정을 들은 옥천신문은 작은 도서관 기획을 시작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에 '작은 도서관 기획'을 신청해 364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4월말부터 기획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기획은 다음과 같다.

- 1회 (4월 27일) : 걸어서 10분 도서관, '문향 옥천' 만들자
옥천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신청 한건도 안 해
- 2회 (5월 4일) : 인구 27만 순천시 2010프로젝트, 도서관 60개 세운다
5천명에 도서관 하나, 걸어서 10분
- 3회 (5월 11일) : 먼 지역에도 도서관 설립한 당진군
복지관, 새마을금고도 다 주민 품으로
- 4회 (5월 18일) : 동두천시, 지혜의 등대 세우다
8만명 인구에 도서관 7개, 브라질 꾸리찌바 벤치마킹
- 5회 (5월 25일) :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 받는 네덜란드 작은 도서관
차보다 자전거 우선, 자전거 타고 5분이면 도서관

이 기획의 취지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농촌 먼지역 최초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의 2억원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건물을 짓게 된 옥천군 안남면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설립과 관련,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이끌고, 다른 면 지역에도 이를 확산, 옥천군 주민이면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사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도서관 설립기금까지는 지원받았지만, 자치단체의 꾸준한 운영비 지원과 책 구입비 지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서관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접한 기자는 각 선진자치단체 및 네덜란드의 작은 도서관 시스템 취재를 통해 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려 한 것이다.

보도가 나가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던 안남면 주민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군에 가서 직접 예산을 요구했다. 보도를 접한 공무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변하였고,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로 인해 올해 추경예산에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으로 2,790만원(시설비 1,790만원, 운영·인건비 1,000만원)을 책정해 통과됐다. 또, 당초 본예산



(안남면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농촌 여성들의 활동 공간으로 구상할 도서관을 꿈꿔왔다. '안남면 작은도서관 설립추진위' 위원들)

으로 세워졌던 문고 예산 800만원도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책 구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주교종 운영위원장은 “특히 당진군의 도서관 정책보도를 보고서 큰 힘을 얻어 군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다”며 “지역 언론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 꾸준히 보도를 하면서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도서관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군 문화홍보과 김성원 문화관광담당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예산 지원이 망설여졌으나,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 지은 도서관을 보니 주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할 것 같았다”며 “또, 신문에서 계속 연재한 다른 지자체의 도서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서관이 필수시설이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안남배바우도서관의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면도 순차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후 도서관 관련 보도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옥천 지역 내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신문을 통해 끊임없는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3.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난 9월 20일 방문한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에는 여전히 아이들로 넘쳐났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를 중심으로 영화동아리가 조성이 되어 매주 영화시청을 시작했으며, 군에서 지원한 인건비로 2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안남면으로 시집 온 공은경(29)씨는 “시골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도서관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맡겨 책을 읽고 쓸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남농협을 퇴직한 김미희(42)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창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던 차에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과 만나게 됐다.

“우리가 전문 사서가 아니고, 아직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사랑하고, 후원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 일하는데 힘이 납니다.”

도서관은 너른 품이 되었다. 공은경씨는 아이들에게 고구마를 찌어주고,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줬다. 저녁을 굶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도서관에 들러 밥을 원하는 만큼 먹었다. 도서관은 이처럼 때로는 밥집이 되었고, 때로는 공부방이 되었으며, 때로는 상담실이 되었고, 때로는 어린이집, 때로는 게스트하우스가 되었다. 월요일만 쉬고,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의 불빛은 항상 켜져 있다. 이 불빛이 계속 켜지도록 많은 지역 주민들이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안남으로 귀농한 귀농인 강점철씨는 선뜻 100만원을 내줬고, 그 밖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적게는 5



(‘안남어머니학교’가 지난해 12월말 면사무소에서 연 방학식을 겸한 책거리 노래자랑에서 ‘할머니 학생’들이 지구, 대한민국, 충북, 옥천군, 안남면, 어머니 학교, 최고, 사랑합니다, 라고 쓰인 종이쪽지를 들고 돌아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원부터 2~3만원까지 매달 꾸준히 돈을 내는 후원회원이 되고 있다. 옥천의 동화읽는어른모임도 정기적으로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다. 아니, 안남면 동화읽는어른모임이 곧 생겨날 태세다.

안남어머니학교 학생들도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면서 도서관과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해마다 농활과 교활을 오는 덕성여대 학생들과 서울교대 학생들은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한다.

도서관은 지역의 어른들과 지역의 아이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장소가 되었다. 이는 공동체를 엮는 씨줄, 날줄로 정교하게 엮어내는 베틀과 같은 기능이다. 아이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아이없이 잘 커 나갈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이 아이를 키우는 셈이다. 지역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 다시 지역을 키워내고, 이런 선순환이 안남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앞으로 해야 할 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옥천군 전체에 촘촘한 작은 도서관 지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 정책 제안을 주민들과 옥천신문이 전인해 나갈 것이다. 가장 작은 면인 안남면을 필두로, 군북, 군서, 청산, 청성, 안내, 이원, 동이면 등에도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군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읍내에 설치해 네트워크가 되도록 할 것이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제를 이끌어내며 여론을 형성하고, 군 공무원과 도서관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 이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은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상당히 의미있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